

단일 기업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 열릴까

KOSPI 8,051pt (-0.5%), KOSDAQ 847pt (-2.5%)

① 해외 사항 미국 휴장

- 미국 주식시장 독립기념일로 휴장

② 수급 삼성전자 잠정실적 이후 외국인 자금 복귀 여부 확인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2.7조, 외국인 -1.3조, 기관 -1.5조원 순매수(연기금 +338억원). 외국인 현물 순매도액은 6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축소. 순매도 업종은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 내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 4월 초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 복귀할지 확인 필요. 환율 변동성 축소 효과도 동반 가능

③ 특징업종 반도체 소부장 쉬고 호실적 산업재, 증권 순환매

- 코스피 대형주 -0.5%, 중형주 -0.6%, 소형주 +0.5%. 대부분 종목 약세 중 자동차·조선·증권 선방. **1) 반도체:** 삼성전자(+2.8%) 실적 기대감으로 지주사(삼성생명 +2.7%, 삼성물산 +3.7%, 삼성화재 +5.6%) 상승세 유지. 그 외 약세. **2) 자동차:** 현대차(+2.0%) 및 기아(+5.7%) 합산 2분기 매출 전망치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3) 조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7일 05시, 예상) 임박. 한화오션(+8.3%), HD현대중공업(+1.0%). **4) 증권:**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늘어나며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 증가로 증권 업종의 실적 기대에 강세 유지, 미래에셋 +4.7% NH투자 +5.4%.

④ 이벤트 환율 새 역사 쓰는 날, 실적 시즌도 초읽기

- 1) 美 증시 독립기념일 휴장(금일 3일, 6일 재개장) 2)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전면 개방 시행(6일, 주중 새벽시간대 원/달러 실시간 거래 가능해지며 개장 변동성 완화 기대) 3) 삼성전자, LG전자 잠정실적 (7일) 4)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10일).

⑤ 사항 삼성전자 잠정실적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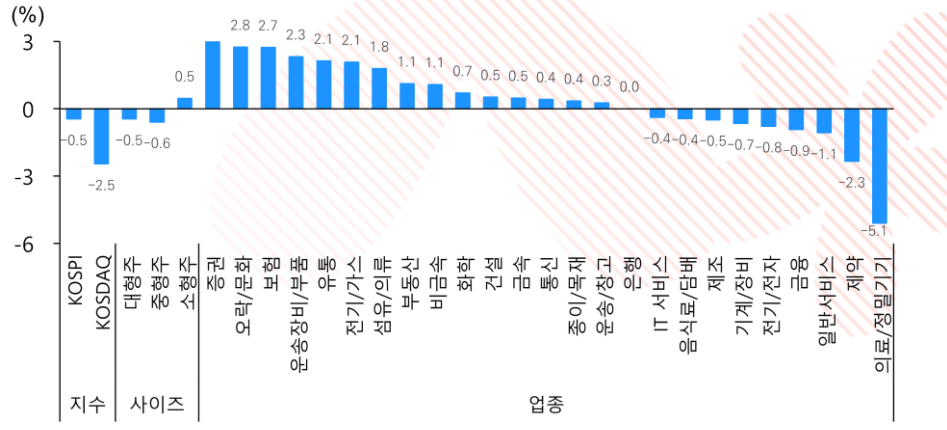
- 금일 KOSPI, KOSDAQ 각각 0.5%, 2.5% 하락. 금일도 변동성 지속. 장 초반 내일 실적 발표 기대감 속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도하며 지수 8,300pt 돌파, 이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7,816pt까지 하락. 이후 저가매수에 유입되며 반등. 지난 금요일과 오늘 장중 저가는 각각 7,378pt, 7,815pt 로 전일 EPS 기준 12개월 선행 PER은 각각 6.74배, 6.76배. 현재 KOSPI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에 대한 판단은 1) 반도체 실적에 대한 경계감 2) 반도체 호실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시클릭 산업에서 진정 탈피했는지에 대한 시장 판단 유보)에서 비롯됨. 그럼에도 6.7배 수준의 금융위기 가정, EPS 하향 조정 가정 모두 반영한 압도적으로 매도실익 없는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 동반됨을 확인
- 삼성전자 실적은 2분기 실적 신호탄.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컨센서스 상단을 초과하며 주가 및 지수 상승 견인. 당시 외국인 역시 순매도로 일관하다 순매수 전환. 이번에도 성과급 총당금 반영한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단 90조원 수준으로 집계. 해당 컨센서스 상회하는 수준의 압도적 호실적 발표된다면 여러 노이즈 정리될 수준이며 현재의 밸류에이션 밴드 최하단 수준도 상향 조정될 것
- KOSDAQ은 오늘도 기존 문제점(수급, 이익, 레버리지ETF) 지속되며 반등 실패. 그간 KOSDAQ 지수 지지하던 반도체 소부장도 엔비디아 Kyber 출시 지연 소식에 동반 약세. 다만 MDD -30% 이상 확대됐으며 경기선인 120일선과의 이격도도 너무 커진 상황. RSI(14일)도 34.7로 과매도 직전 구간. 삼성전자 잠정실적 이후 외국인 자금 복귀한다면 KOSDAQ 저가매수 주체(개인) 복귀 가능성 타진 가능하다는 판단. 외국인 자금 유입이 KOSDAQ 수급 장기주체인 개인 자금 복귀 여부를 결정지를 전망.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연말(여야 가릴 것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의 수급 쏠림 문제점을 질타, 거래관리 강화, 괴리율 규제, 투자자 진입장벽 상향 등 제도 개선 동반된다면 현재 개인투자자의 극심한 수급 쏠림 분산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는 판단. 다만 해당 제도 개선 미진할 시 외국인 자금 복귀에도 개인투자자의 KOSDAQ 복귀 가능성 낮을 것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14,675	-2,270
외국인	-13,088	-447
개인	26,806	2,694
거래대금	315,950	61,063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